

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 : 여성주의 민족지의 젠더와 계급

채 수 홍*

초 록

이 글은 인류학자들이 여성주의자(feminist)의 관점에서 여성 공장노동자에 관한 민족지를 쓰면서 계급과 젠더(gender)를 어떤 수준에서 다루고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자의 민족지 쓰기가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의식과 실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통찰력과 의문점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첫째, 여성노동자에 관해 기술한 많은 민족지가 안고 있는 남성-편향적 시각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소개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가족과 가구경제에 대한 연구와 신국제분업론에 영향을 받아 기술된 민족지에 대한 비판을 소개한다. 둘째, 여성주의자들이 자신이 쓴 민족지 속에서 남성-편향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살펴본다. 특히 민족지 속에서 어떻게 젠더와 계급을 개념화하고 양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아시아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의식과 실천을 다룬 모범적인 민족지 3편을 선별되었다. 아이와 웅(A. Ong, 1987a)의 “저항의 정신과 자본주의 훈련,” 찡관리(Lee, C. K., 1998)의 “젠더와 남부 중국의 경제 기적,” 김현미(Kim, H. M., 1995)의 “현대 한국의 노동, 정치, 여성 주체”가 이 글에서 살펴볼 민족지들이다.

마지막으로, 남성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여성주의자가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민족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문점을 논의한다. 무엇보다, 여성주의가 스스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는 의문을 던져본다. 결정화된 자본주의 대신에 결정화된 가부장주의가, 결정화된 여성 대신 결정화된 남성이, 계급환원론 대신에 젠더환원론이, 경제결정론 대신에 문화결정론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마르크스주의가 여성을 젠더나 의식과 관련하여 다루지 않고 같은 성(sex)을 가진 집단으로 범주화해서 다루는 것과 유사하게 여성주의자들도 계급을 계급의식을 가진 주체로 보다는 범주로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론에서 이 글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1) 정체성과 물질적 조건들 사이의 관계, (2) 사람들의 물질 조건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데 문화, 담화, 섹슈얼리티, 감정 등의 역할, (3) 계급의식과 여타의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인류학자들이 여성주의자의 관점에서 여성 공장노동자에 관한 민족지를 쓰면서 계급과 젠더¹⁾를 어떤 수준에서 다루고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자의 민족지 쓰기가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의식과 실천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통찰력과 의문점에 대해 살펴본다.

이런 주제의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하는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필자가 젠더와 여성주의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는 남성 인류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결행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논하게 될 쟁점을 축약해서 설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소개해 보겠다.

필자는 약 1년 반 동안(1999 가을- 2000 봄) 베트남의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관한 현지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Chae, 2003 참조). 이후 미

1) 이 글에서는 gender를 젠더라고 발음대로 표기하겠다. 성(性)이라는 용어로 번역을 하면 생물학적인 성(sex)과 혼동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차(性差)에 기반한 관념 또는 사회적 구성물로 정의될 수 있다. 다만 gender identity처럼 젠더가 수식어로 쓰인 용어를 번역할 때는 성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즉 gender identity는 성적 정체성으로 번역하겠다. 이 밖에 성성이나 전성으로도 번역되는 sexuality도 그냥 '섹슈얼리티'라고 쓰겠다.

국으로 돌아가 박사논문의 초고를 마치고 선생님들에게 보여 드렸을 때 가장 큰 지적을 받은 것이 젠더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여성 교수들은 필자의 현지조사 대상의 다수가 노동집약적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젠더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 문화, 정치적 실천의 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남성 인류학도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지적이었다. 무엇보다 성/계급, 성에 관한 문화/계급문화, 젠더/계급의식 사이의 공통점, 차이점, 연계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필자가 익숙했던 정치경제학적 혹은 마르크스주의의 문화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을 하나의 집단적 범주로만 취급하였다. 또한 젠더도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의식의 한 형태로만 간주하였다. 대조적으로, 새로 접하기 시작한 여성주의자의 연구들은 계급을 구조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 국한시켜 정의한 뒤 노동자의 의식과 실천의 문제를 젠더에 귀착시키는 환원론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지적혼돈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노동자가 다수인 공장을 연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필자가 쓰고 있던 민족지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부분적으로 뻗들하여 보여주는 정도였다.

남성노동자를 연구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새삼 깨달은 것은 논문을 거의 마쳐갈 무렵이었다. 공장의 노동과정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마이클 버로워이(Michael Burawoy)가 참여한 집담회에 간 것이 계기였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그에게 쏟아진 질문이 필자가 받은 것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가 노동자의 의식을 여러 종류의 정체성, 특히 성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연구하지 않는 것은 “젠더에 대한 중립적 태도(gender-neutral)”가 아니라 “눈을 감고 젠더를 외면하는(gender-blind)” 연구태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여성학자들의 이런 비판에 대해 “노동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여, 흑인/백인, 일본인/한국인 등의) 특정한 행위자로부터 독립”(Burawoy, 1985 : 35)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그의 기본입장을 견지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던 여성 인류학자들은 특정한 행위자가 백지상태에서가 아니라 살면서 획득한 사회적 의식과

문화적 관념을 가지고 노동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견해에 회의를 나타냈다.

이런 경험들은 필자에게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여성노동자를 젠더를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자 또는 노동계급으로서만 취급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불완전한 분석일 뿐 의미 있는 작업일까 아니면 여성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사회적 실재와 의식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여성주의자가 여성 노동자를 여성으로서만, 즉 젠더를 계급적 문제를 별개로 독립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여성 노동자가 (분석과정에서는 여성과 노동자를 분리해서 다룰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여성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같은 분석틀(analytic framework) 안에서 동시에 다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어졌다. 다시 말해, 인간이 가진 “다원적인 정체성의 동시성”(Brewer, 1997; Brodtkin, 2000)을 어떻게 분석하고 기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의문에 답을 시도해 본다. 이를 위해 이미 여성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 간에 격렬한 논란을 거친 고전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실제로 여성노동자를 기술한 민족지²⁾들을 소재로 삼아 논의를 진전시켜 보려한다. 이런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은 추상적인 차원의 이론적 주장을 펼치는 것과 이론을 실제 분석과 기술(記述)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글은 첫째, 여성노동자에 관해 기술한 많은 민족지가 안고 있는 남성-편향적 시각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소개한다. 둘째, 여성주의자들이 자신이 쓴 민족지 속에서 남성-편향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어떻게 젠더와 계급을 개념화하고 양자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아시아 여성노동자의

2) 민족지는 ethnography의 번역으로 때론 민속지라고도 부른다. 인류학자가 장기간 현지 연구(fieldwork)를 통해 관찰하고 분석한 사실을 이론에 맞추어 쓰는 일종의 과학적 르포르타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치적 의식과 실천을 다룬 민족지 3편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남성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여성주의자가 쓴 민족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문점을 젠더와 계급의 문제에 국한해서 논해 보겠다.

II. 여성주의자 인류학자의 남성-편향적 민족지에 대한 비판³⁾

1. 여성노동자의 가족과 가구경제 대한 연구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의 가장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된 여성노동자에 관한 민족지는 가족과 가구경제(household economy)를 다룬 것들이다. 이 민족지들이 가부장적 권위를 절대시하고 가족내부의 조화로운 협력을 과장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가족내부의 불평등한 관계 특히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부지불식간에 감추었기 때문이다(M. Wolf, 1972; Hartmann, 1981). 예를 들어, 차야노프(Chayanov, 1966)의 가구경제이론이나 베커(Becker, 1986)의 신가구경제이론의 영향을 받은 많은 민족지들이 ‘수입의 공동운용(income pooling)’을 통한 노동자 가구의 재생산과정을 연구하면서 가구 구성원, 특히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과 이견을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⁴⁾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은 객관성을 가장한 남성-편향적 민족지들의 가구경제 분석이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여성 노동자의 행위에 숨어있는 동기와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을 경시한다. 미혼 여성

3) 이 글에서 여성주의자란 젠더-계급의 이원론적 입장을 가지고 여성주의자의 관점에서 글을 쓴 사람이라는 국한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광의의 여성주의자에 포함되면서도 일원론적 입장에 있는 인류학자들은 그냥 여성 인류학자로 표기했다. 이런 정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실은 남성 인류학자도 여성주의자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남성 인류학자로 통칭되는 사람들은 여성주의 인류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남성편향적 시각을 보여주는 민족지를 쓴 학자들에 국한된다는 점을 말해 두고 싶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차후 보충설명을 할 것이다.

4) 차야노프의 가내경제 이론의 영향력 하에 쓰여진 민족지에 대한 비판은 로스베리(Roseberry, 1986)를 베커의 신가내경제 이론의 영향력을 받은 민족지에 대한 비판은 벤포레쓰(Ben-Porath, 1982)와 울프(Wolf, D., 1992)를 참조할 것.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딸이나 누이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울프(Wolf, D., 1992)가 인도네시아의 미혼 여성공장노동자들에 관한 민족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둘째, 노동자 가구에서 발견되는 남성 권위의 형태와 여성의 역할이 사회마다 다양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지구상에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주의가 존재하고 이에 조응하여 가구가 운영되는 원리도 다양하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아시아의 몇몇 사회만 보아도 가부장주의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태국의 여성은 가족제도의 양면적(bilateral) 성격 덕택에 부계적(patrilinal)성격의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유교권 사회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유연한 가족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vey, 1994).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은 이런 차이점을 강조하며, 여성노동자가 다른 형태의 가족 내에서 어떤 차별적 의미를 추구하며 누구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Ong, 1987a; Niehoff, 1987; Kim, M., 1991).

이와 같이 여성노동자 가구를 연구한 민족지가 가진 남성-편향적 성격에 대한 여성주의자의 비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는데 도움을 준바 있다. 하지만 대안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주의자가 쓴 민족지들 역시 여성노동자 연구로서의 한계가 명확했다.⁵⁾ 연구의 대상이 가구의 경제적 재생산과 가족 내부의 권력관계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삶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가 단순화되곤 했다. 여성이 공장노동을 하게 된 동기와 조건 그리고 이 여성이 노동을 통해 버는 돈의 기능과 의미까지는 가족, 친족, 지역공동체와 관련하여 논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가 공장에서 노동을 하며 획득하는 의식과 경험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지불노동이 여성 혹은 노동자로서 주체를 형성

5) 지금부터 언급하는 한계들은 뒤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할 여성주의자의 민족지에서 많이 극복되었다. 하지만 이 한계들은 여전히 여성노동자에 관한 여성주의자의 민족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가 공장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지 다른 노동자나 경영진에는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었다. 여성노동자에게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한 소위 ‘생산의 정치(politics of production)’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이다. 여성주의 인류학자가 주로 국제적 자본이 투여된 제3세계의 여성공장노동자를 연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한 한계였다.

2. 신국제노동분업론과 여성노동자 연구

노동자 가구경제의 특성에 대한 연구보다 약간 뒤늦게 등장하여 80년대 초부터 인류학에서 인기를 끌었던 또 하나의 여성노동자에 관한 연구경향이 있다. 프뢰벨(Frobel), 하인리히스(Heinrichs), 크레여(Kreye)의 공동저서 ‘신국제노동분업(1981)’의 영향을 받아 신국제노동분업(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체제하의 여성의 노동조건과 착취에 대해 연구한 것이 그것이다(Blim, 1992 : 4). 주지하다시피 신국제노동분업론(이하 분업론)은 월러스타인(Wallerstein)의 세계체제론과 종속이론이 세계시장의 불평등교환에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적으로 발전시켜 생산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이 이론의 요점은 세계체제의 본질이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심국가의 자본과 값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후진국 노동자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여성 인류학자들은 이 이론을 활용하여 선진국에서 이전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제3세계 여성의 삶이 자본축적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이들의 삶의 변화가 제3세계 여성을 억압하던 봉건주의적 가부장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이런 경향의 민족지적 연구를 대표하는 책이 내쉬(Nash)와 페르난데즈-켈리(Fernandez-Kelly, 1983)가 편집한 “여성, 남성, 국제노동분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제3세계 여성이 자본주의와 봉건적인 가부장주의의 이중적 억압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⁶⁾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노동분업이 발전함에 따라 선진자본주의의 여성들은 자본의 논리와 견해를 내재화해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대조적으로 제3세계 여성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 자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동시에 싸워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분업론의 영향을 받은 여성 인류학자들은 여성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인류학자들과 중요한 인식론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전제인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조응 및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 등의 개념을 통해 여성의 억압을 이해하려 했다. 즉 자본의 논리(하부구조)와 가부장주의(상부구조)로 축약될 수 있는 여성의 정치, 사회, 문화적 억압 기제가 어떻게 조응하고 동시에 후자가 전자에 대해 어떻게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여성을 연구하는 여성 인류학자라고 해서 여성주의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이 경향을 대표하는 여성 인류학자의 하나인 준 내쉬(June Nash)도 자신이 여성의 정치적 권리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투쟁해 왔지만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지 망설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Nash, 1998).

이들을 굳이 여성주의자로 분류한다면 1세대 사회주의적-여성주의자(Socialist-Feminist)의 양 축의 하나인 일원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자본-가부장주의, 계급-젠더, 계급적 불평등-여성의 억압의 조합 중 앞의 것들과 뒤의 것들이 밀접하게 조응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이 기술한 민족지는 여성노동자의 삶이 자본주의/가부장주의, 젠더/계급의 긴밀한 연계 속에 재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점에서 여성노동자의 연구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주의의 연구가 아니라 “자본주의적-가부장주의(capitalist-patriarchy)”라는 브레너(Brenner, 2000 : 60)의 일원론적 주장과 원칙적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내쉬가 자신이 이원론이나 관념론적 이론들이 주류를 이루는 자칭 여성

6) 이 저자들 중 린다 림(Linda Lim)만이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전통적인 가부장주의가 여성을 열악한 노동시장의 내몰았으며 그 결과 외국자본이 최소한 여성을 봉건적인 족쇄에서는 풀어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Ong, 1987b).

주의자들과 동일한 범주로 묶이는 것에 대해 회의를 나타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주의자를 자처하며 여성노동자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 분업론의 일원론적 성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실제로는 (특히 제3세계) 여성노동자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여성주의자들이 분업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적어도 제3세계의 자유수출공단이나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 관한 민족지를 기술하면서 분업론이 설파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⁷⁾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여성노동자의 가족이나 가구경제에 관해 연구하는 이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점, 즉 여성이 노동과 일터로부터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었던 점을 분업론을 토대로 한 여성연구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 하다. 하지만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분업론을 이용한 정치경제학적 여성노동자 연구가 중대한 결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웅(Ong, 1987b : 618-624)에 따르면 분업론을 이용한 여성노동자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본적인 이론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구조-중심적 이론이다. 여성의 의식과 행위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법칙에 따른다는 인식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쉬와 페르난데즈-켈리의 책에 실린 모든 논문들이 “자본의 축적이 지배” 또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요구”를 핵심적인 문장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행위자를 지배하는 강력한 외부적인 힘에 행위자를 가두어 놓고 있다. 즉 자본주의를 ‘결정화된(essentialized)’실체로 취급하고 있다. 결정화된 것은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만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가부장주의 역시 결정화되고 구상화(reified)된 실재처럼 사

7) 물론 신국제노동분업이론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 이론이 자본이동의 동인으로 ‘값싼 임금’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비판되기도 했다(D. A. Smith 1996 참조). 최근에는 선진자본주의에만 탈산업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다른 주변국으로의 자본이동이 일어난다는 점도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신국제노동분업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의 공헌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블림(Blim, M.)과 로쓰타인(Rothstein, F., 1992)이 편집한 “anthropology of global factory”의 서문을 참조할 것.

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주의가 결정화됨으로써 마치 이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간주된다. 그 결과 “여성을 결정화된 범주로 환원”(ibid : 621)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고 저항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는’ 희생물로써만 취급되거나 아니면 ‘허위의식에 젖어있는’ 주체로만 취급된다.

이러한 혹독한 비판은 그 동안 구조중심적 인식론이 과정이나 행위자의 실천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회과학 일반의 자성과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귀담아 들을 만하다. 하지만 앞으로 옹 자신의 민족지적 기술을 해부하며 살펴보겠지만 구조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동시에 행위자-중심적 사고에도 빠져들지 않으면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실천적으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Giddens, 1979 참조). 또한 전체화하는(totalizing) 이론이나 결정화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명언이긴 하지만 민족지적 기술에서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인류학자는 흔히 일상사를 관찰하고 행위자들의 해석을 기술하면서 살아있는 경험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설명하거나 이론화하면서 필요에 따라 구조화되고 결정화된 개념과 거대이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곤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주의자가 쓴 여성노동자에 대한 민족지 3편을 직접 분석하여 분업론에 기초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에 대한 옹을 비롯한 이후 여성주의자의 비판의 정당성과 문제점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들 민족지에서 계급과 젠더가 어떻게 정의되고 이론 속에 통합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의식과 실천에 대해 어떤 점을 알 수 있었고 어떤 점을 알 수 없었나 검토해 볼 것이다.

Ⅲ. 여성주의자의 여성노동자에 관한 민족지에 나타난 젠더와 계급

이 절에서 살펴 볼 여성노동자에 관한 여성주의자의 민족지는 모두 세 편

이다.⁸⁾ 아이와 웅(Ong, Aihwa, 1987a)의 “저항의 정신과 자본주의 훈련 (Spirits of Resistance and Capitalist Discipline) : 말레이시아의 여성 공장노동자(Factory Women in Malaysia),” 쟁판리(Lee, Ching Kwan, 1998)의 “젠더와 남부 중국의 경제 기적(Gender and the South China Miracle) : 여성 공장노동자의 두 세계(Two worlds of factory women),” 김현미(Kim, Hyun Mee, 1995)의 “현대 한국의 노동, 정치, 여성 주체(Labor, Politics, and the Women Subject In Contemporary Korea)”가 그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족지들은 세 나라(말레이시아, 중국, 한국)가 각각 국제적 자본의 도움으로 빠르게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던 시기에 공장에서 일 하던 여성노동자들에 관한 민족지이다. 먼저 이 세 민족지를 특별히 선정 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언급하겠다.⁹⁾

이 세 민족지는 공히 계급과 젠더를 주요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여성노동자라는 주체의 정치적 의식과 실천을 명쾌하고 세련된 논리적 구성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에 맞추어 여러 문제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더불어, 이 민족지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대적 전통 안에 있는 ‘여성주의자관점이론(Feminist standpoint view)’과 소위 후기(post)라는 접두어가 붙는 이론들(특히 포스

8) 이 세 학자 중 자신의 민족지에 명시적으로 스스로를 여성주의자라고 표방하고 있는 사람은 쟁판리 뿐이다. 하지만 미국 인류학계에서 여성주의자의 여성연구에 대한 영향력 있는 글을 써 온 웅 역시 여성주의자로 칭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김현미(1997)의 경우에는 그녀가 쓴 논문 ‘페미니즘과 문화연구는 행복하게 만나는가’라는 글을 읽어보고 필자가 자의적으로 여성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학자에게 ‘OO 주의자’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단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글을 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9) 민족지는 인류학자가 현지인과 같이 살면서 장기간의 현지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일종의 ‘사회과학적 장편소설’이라서 때론 완전히 서로 대립되는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이론들을 포함한 많은 이론들이 (고의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사례의 해석과 맥락의 기술을 위해 활용된다. 또한 인류학자는 총체론(holism)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학문적 전통 때문에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들을 모두 민족지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한다. 이런 연유로 민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 분석기법, 사례 등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필자가 이 글의 주제에 맞추어 재단한 것일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본격적인 민족지 분석에서도 필자가 저자의 설명을 단순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둔다.

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의 긴장감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논지에 맞추어 잘 조화시키고 있다.¹⁰⁾ 따라서 계급과 젠더의 관계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거대이론들의 인식론적 차이를 개입시켜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세 민족지가 앞 절에서 논의한 여성노동자에 관한 민족지들과 비교검토를 행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세 민족지가 가정이나 가구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여성주의자의 여성노동자 연구와 마찬가지로 젠더와 계급에 관한 이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¹⁾ 하지만 가족이나 가구만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의 일터에서의 경험과 실천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이 앞에서 가한 비판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세 민족지는 분업론에 기초한 민족지들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자본의 논리와 노동자의 저항을 소재로 삼음으로써 국제적인(global) 영역과 지방적(local)인 영역의 연계성 하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분업론에 기초한 여성노동자 연구의 일원론적 입장을 비판하는 이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이 위에서 행한 비판을 일원론적 입장에서 역으로 되짚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 민족지가 지닌 변별성도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었다. 우선 옹의 민족지는 가부장주의와 섹슈얼리티의 통제를 주제로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실천을 다루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리의 논문은 노동시장의 성적 분절화(segmentation)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문화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실천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의 논문은 여성노동자의 정체성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과정과 문화적 재현(cultural representation)에 주목하여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실천을 다루고 있다.¹²⁾ 이 세 민족지가 보여주는 초점의 변별성은 가족, 일터, 공동체에서

10) 여성주의자관점이론과 후기이론의 정의와 양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캐시 워스(Weeks, Kathi, 1996)를 참조할 것.

11) 이 세 민족지가 공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계급-젠더에 관한 이원론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곧 옹의 민족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설명할 것이다.

12) 이 세 민족지의 주제에서도 드러나듯이, 김미현과 옹이 섹슈얼리티, 사회적 구성물, 재

발견되는 노동자의 다양한 의식과 실천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 가부장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여성노동자 : 옹의 민족지

옹의 민족지 “저항의 정신과 자본주의 혼란”은 말레이시아 셀랑고르(Selangor) 지역에 위치한 캄푹(Kampung)사회의 변화와 이곳 일본계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 관한 민족지이다. 이 지역에는 영국 식민지 시대에 자바(Java)로부터 이주해 온 자작농 집단이 전통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전통적인 농촌이었던 이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반 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이 건설되고 전자제품과 반도체를 생산하는 다국적 공장들이 건설되면서부터이다.

이 지역 공장의 주요 노동력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학업을 그만두고 일을 해야만 했던 미혼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옹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이 미혼 여성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귀신들리는(spirit possession)’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었다. 이들 중 하나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귀신에 들리면 동료 노동자들이 일종의 집단적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자주 발생하였다. 이 민족지는 이 사건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원인을 진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옹이 귀신들리기의 원인을 찾기 위해 주목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공장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노동자들의 섹슈얼리티의 문화적 구성과 변화였다. 이곳 여성들은 이슬람의 영향아래 순결과 딸로서의 헌신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압력과, 근대화와 서구화를 선망하도록 만드는 국제자본의 문화적 유혹을 모두 경험하고 있었다. 남성들 역시 전통적이고 정결한 여성과 근대적인 여성을 동시에 갈망했다. 국가, 지역사회, 미디어는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다국적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을 여러

현, 일상적 맥락에서 행사되는 권력과 같은 후기구조주의의 개념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리는 후기 이론의 인식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가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낙인찍었다. 여성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모순된 이미지를 갖기는 마찬가지였다. 근대적인 여성을 갈망하며 쇼핑을 다니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이슬람의 순결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다.

웅이 찾아낸 또 하나의 실마리는 공장에서의 노동이 이 미혼 여성노동자들의 삶에 일으킨 변화였다. 즐겁지 않은 노동은 소외감을 일상적으로 만들어 냈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착취하려는 자본주의적 훈육과 노동통제는 적대감을 양산했다. 이런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인 소비생활을 즐기려 하면 개인주의의 타락을 질책하는 가족과 사회의 압력이 쏟아졌다. 남성-편향적인 국가, 지역사회, 가족, 공장 매니저들은 미혼 여성노동자들의 단합과 저항도 허용하지 않았다. 웅의 진단에 의하면 이런 두 가지 강력한 압력 아래서 여성의 저항이 표출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귀신이 들리는 것뿐이었다. 요약하면, 웅의 민족지는 여성노동자의 주체성이 여성의 섹슈얼리티, 젠더, 노동에 관한 스스로와 타자의 압력에 대한 경험에서 형성되며, 외형상 이러한 경험과 무관해 보이는 '귀신들리기'같은 문화적 현상 역시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인간성 회복의 몸부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웅의 이러한 진단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웅이 분업론의 여성 이론가 중에 유달리 혹독한 비판을 가했던 린다 림(Linda Lim)은 간명한 질문으로 웅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했다(Lim, 1988 : 133-135). 림의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왜 같은 경험을 했던 노동자 가운데 소수만이 귀신이 들렸고 산업화의 확산에 따라 자본주의적 훈육이 더욱 강화된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급격히 줄어들었는가? 웅이 이런 질문에 답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또는 젠더)의 형성과 계급의 형성을無理하게 연결시키려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림의 말대로,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말레이시아 여성의 귀신들리기 사이에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원인을 자본주의 훈육과 남성의 통제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웅이 계급-젠더 또는 자본주의-가부장주의를 하나의 연결된 체계라고 본 일원론적 인식에 비판을 가하면서 앞에서 지적했던 점들을 다

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앞에서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현실분석에서 가지는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자본주의나 가부장주의처럼 결정화되고 구조화된 개념을 사용하여 행위자의 의식과 실천을 구조에 대한 단순한 반영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실제로 이 민족지를 통해 여성노동자가 가지는 있는 모순된 의식을 보여주거나 가부장주의가 때론 피해자인 여성에 의해 도전을 받고 경합되는(contested) 의미라는 것을 부각 시킴으로써 행위자의 다양한 의식을 보여주려 했다.

문제는 옹이 민족지 속에서 국가, 지역공동체, 아버지, 오빠, 남성 매니저의 공모를 당연시하고 절대시하면서 가부장주의가 다시 결정화된 개념으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남성은 모두 결정화된 가부장주의의 담지자이며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민족지의 핵심주장이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자본주의적 훈육에 대한 반응으로써 귀신들리기’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을 위해 그녀는 자신이 맹렬하게 비판했던 결정화되고 구조화된 자본주의 개념을 다시 사용했으며 그녀가 주목한 사건 즉 귀신들리기가 이에 대한 반응이라는 주장으로 되돌아갔다. 결국 이 민족지에서는 과정, 이질성, 유동성을 보여주려는 부분적인 노력들이 구조화된 자본주의와 가부장주의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인식과 반응이라는 전체 대의에 묻히고 만 것 같다. 비판이 옳다는 것과 (민족지 기술의) 실천을 통해 대안을 보여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 민족지를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옹이 이 민족지에서 계급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급과 젠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하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이 민족지에서 계급이 구조적인 수준에서 정의되고 사회집단을 나타내는 범주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계급은 생산의 현장에서 노동조직, 노동과정, 이데올로기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노동자가 획득하는 경험과 의식의 수준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계급은 구조적인 산물일 뿐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다. 하지만 이 민족지에서는 계급이 경험, 의식, 행동하는 주체로 살아날 방법이 있다. 여성이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된다. 그러면 비로소 살아있는 여성노동자나 여성노동계급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물론 한 사람이 여성과 노동자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¹³⁾ 하지만 이런 주장은 우리가 다원적인 정체성을 가진 인간을 여러 가지 범주로 각각 분리해서 보는 이유가 각각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특수한 관계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가령, 한 여성이 푸에르토리코-흑인-여성-노동자로서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그냥 흑인으로서 또는 푸에르토리코 사람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이나 의식을 분리시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둘 중의 하나의 경우일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모든 정체성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상위(上位)의 정체성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푸에르토리코-흑인-여성-노동자로 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만을 독립시켜 바라보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 두 가지 대답이 모두 불완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남성이라는 구별 없이는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의식과 경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끝으로, 옹의 민족지에서 여성노동자가 노동계급으로서 가지는 의식과 경험을 왜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일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산의 정치에 대한 현지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본다. 필자가 1년 반 동안 베트남의 공장에서 참여관찰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노동자가 특정한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조직에 속해 특정한 노동과정에 참여하면서 특정한 의식과 경험을 획득한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공장내부의 정치구조와 정치과정에 따라 노동자의 저항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배울 수 있었다. 공장은 단순히 노동자가 일을 하고 통제를 받는 곳이 아니고 다양한 의식과

13) 다음에 소개할 민족지에서 리(Lee)는 실제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옹이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지는 그녀의 민족지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옹이 리보다는 여성으로서의 의식-경험과 노동자로서의 의식-경험의 분리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의식과 경험이 여성으로서의 의식과 경험에 종속된 변수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입장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경험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복잡한 정치적 영역이었다(Chae, 2003). 다음 민족지는 바로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젠더와 계급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2. 생산영역과 여성 노동자 : 리의 민족지

쥘리언의 민족지는 여성주의자의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 계급정의의 기초를 이루는 생산의 영역을 직접 다루려고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리의 민족지는 생산의 영역에서도 젠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계급과 관련해서만 다루어져 왔던 노동과정, 노동조직, 노동에서 발생하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과정을 새롭게 조명하려 시도한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리가 계급과 생산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관점과 개념을 통해 새로운 이해를 시도했는지, 그녀의 민족지가 그녀의 새로운 주장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리가 이 민족지를 기술하면서 화두(話頭)로 삼고 있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계급이론의 한 축인 노동과정과 노동통제이다. 특히 그녀의 스승인 마이클 버러위의 이론을 여성주의자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버러위는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노동(생산과정에서 실현되는 일정량의 노동)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이를 위한 노동통제의 양상을 연구해 온 사회학자이다. 그는 마르크스와 브레이버만(Braverman, H.)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노동과정의 경제적 측면(이익실현을 위한 물건의 생산), 정치적 측면(생산과 관련된 사회관계의 재생산), 이념적 측면(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과 노동통제의 관련성에 대해 영향력 있는 이론들을 내놓은 바 있다. 버러위 이론의 핵심적 내용은 업무의 기술적·사회적 조직방식(즉 노동과정)과 업무를 통제하는 제도(즉 생산기구 the production apparatuses)의 강제성 여부, 즉 어느 정도 강제적이고 어느 정도 동의에 기반 하는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유형을 정권(regime)에 비유해 크게 전제적(despotic)인 공장정권과 헤게모니적 공장정

권으로 나누고 몇 가지 응용된 유형이나 중간적 유형을 제시했다(Burawoy, 1985).

리가 버러워이에 대해 행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여성주의자가 마르크스주의자에 행한 비판의 연장선에 있다. 우선, 리는 버러워이의 이론이 매우 결정론적이고 구조중심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과정과 노동통제가 구조화되는 양상에 따라 노동자의 주체성과 행위양식이 결정되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여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차이와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외부적 조건이 없으면 경영진은 전제적인 통제를 선호하게 되어 있다는 버러워이의 주장에 대해 구조결정론적 사고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신이 현지연구에서 목격한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경영진은 물론이고 남성/여성노동자들도 구조적인 결정에 꼭두각시처럼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차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과정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Lee, 1998 : 19).

무엇보다, 리가 버러워이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계급이 젠더에 우선한다는 기본 전제이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버러워이는 “계급이 사회를 조직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리”(Burawoy, 1985 : 9)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버러워이는 “젠더나 인종에 의해 계급 지배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인종적, 성적 지배가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계급에 의해 형태를 갖추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ibid.). 리는 이런 주장이 ‘이해(관계)의 이론(theory of interest)’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한다. 인간주체는 이해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젠더, 민족, 계급, 인종 등이 상호작용하며 권력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은 “생산의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재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Lee, 1998 : 21).

리는 더 나아가 공장정권이 ‘성별화된다(gendered)’는 점과 생산현장에서 성적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 끊임없이 전개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노동과정, 노동조직, 노동통제가 젠더의 차이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터의 권력관계의 구성과 젠더가 구성되는 관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젠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체성의 정치란 단지 대중문화나 사회 운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생산현장에서도 발견된다(ibid. : 23).

리는 이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남부 중국의 쉐젠(Shenzhen)과 홍콩 두 곳의 여성노동자를 비교연구하고 있다. 거의 유사한 노동과정과 생산조직을 가진 공장을 양 지역에서 선택한 다음 노동통제의 양상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두 공장의 노동통제 양상의 차이가 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공급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쉐젠이나 홍콩 양 지역 모두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이 미미해 여성노동자들이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 활용되며 이에 따라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쉐젠에서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중매결혼과 가부장적 노동착취를 피해 이주해 온 미혼여성이 공장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 공급원이었다. 따라서 여성의 공장노동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이 “처녀 노동자(maiden worker)”들은 이 지역의 관계망, 특히 남자 친척이나 다른 남성 후견인을 통해 이주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순응해야 했다. 외국인 매니저들도 말 잘 듣고, 숨씨 좋고, 썩 노동력이라는 미혼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반면 홍콩에서는 사람들이 공장노동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에 주로 “아줌마 노동자(matron worker)”들이 노동력 공급원이 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이 힘든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나이가 많고 배운 것이 적은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급되는 노동력의 사회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에서의 노동통제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쉐젠의 공장에서는 외국인 매니저들이 가부장적 지역 관계망을 통해 이주해 온 미혼 여성노동자들에게 징벌적인 통제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미혼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통제보다는 가부장적 속박을 피해 온 것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중요한 것은 일이 끝나고 고향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기발전이나 자유연애에 에너지를 쏟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미혼 여성노동자들이 타향살이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의 향유

라고 느끼는 것과 공장내의 강제적 통제양상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반면 홍콩의 기혼 여성노동자들은 쉐젠의 미혼 여성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절실하게 생존을 공장노동에 의지해야 하지만 의외로 보상적(rewarding)인 통제를 경험한다. 숙련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매니저들은 가족주의를 포용하여 기혼 여성노동자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기혼 여성노동자들도 무식한 노동계급의 어머니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이용하여 고용주에게 필요한 요구를 관철시키곤 한다. 그 결과 이 공장은 여성노동자들이 기혼여성 특히 어머니로서 노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노동자들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리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국가, 노동시장, 젠더 권력의 지역적 존재양태에 따라 생산의 정치가 규정된다는 것이었다. 노동통제가 성적으로 분절되고 성별화된 노동시장의 규정을 받게 되며 결국 노동통제 자체가 성별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리는 지역 공동체, 경영진, 노동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도 노동통제의 양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공장내의 생산의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생산을 둘러싼 정치가 계급-중립적일 수 없듯이 젠더-중립적일 수 없으며 ‘이해에 관한 이론’ 못지 않게 ‘정체성에 관한 이론’이 생산의 정치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리의 민족지는 이런 주장의 논거를 잘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리의 민족지를 그녀의 이론적 주장과 꼼꼼하게 연계하여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든다. 우선, 자신이 공언한대로 버러위의 민족지와 이론을 실제로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필자의 견해로는 리의 민족지와 버러위의 민족지는 연구초점이 다르다. 버러위도 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국가정책, 지역 공동체의 성격이 노동과정, 노동조직, 노동통제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을 뿐 아니라 민족지적 기술을 통해 이를 입증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버러위는 이러한 사실이 연구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다. 연구의 초점은 노동과정, 노동조직, 노동통제 등이 노동자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공장

내부의 생산의 정치를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버러워이의 연구가 정체성 특히 젠더의 중요성을 경시했다는 리의 지적은 정확하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비판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동과정, 노동조직, 노동통제 등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성별화되는 방식을 논증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이것이 남/녀 노동자의 의식과 실천에 공통적으로 혹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리가 “계급이 젠더나 인종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조직원리”라는 버러워이의 주장을 일축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교한 논리적 대안이 필요했다. 이 진술은 버러워이 개인의 선언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한 거대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주장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닐 수 있지만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 버릴 수는 더욱 없다. 일축하기 위해서는 젠더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젠더를 비롯한 다른 정체성을 계급과 관련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왜 계급이 젠더보다 사회재생산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틀렸는지를 논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민족지가 이런 논증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이런 논리적인 오류는 젠더와 다른 정체성(혹은 사회적 집단범주들)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젠더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강조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젠더가 (1) 인종, 민족, 인종, 계급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지, (2) 아니면 가장 중심적인 요소인지, (3) 그도 아니면 계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젠더를 비롯한 다른 요소들도 중요한 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리가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하여 세상을 전체화(totalizing)하려는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보아 세 번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녀의 민족지가 보여주고 있는 주요한 사실이 “국가, 공동체,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조직, 노동자 의식 등이 성에 따라 분화하고 성별화되는 과정”임을 고려해 볼 때 첫 번째 주장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주장을 민족지적 사례들을 통해 논증하는 것은 남성 편향적인 기존 사회과학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문제는 리의 민족지에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그녀가 이 민족지의 말미에 “여성주의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산의 정치

를 연구할 것인가”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혼란이 더욱 가중된다(Lee, 1998 : 165-167). 그녀는 이 제언에서 “공장체제는 성별화된 제도이며 젠더가 생산의 정치에서 중심적이고 일차적인 조직원리”(ibid. : 165)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계급을 젠더로 치환하면 정확하게 버러워이의 주장과 일치한다. 리의 민족지에는 ‘성별화된다(gendered)’와 ‘성별화되는 과정(gendering process)’이라는 개념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개념들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사회의 재생산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젠더가 사회의 재생산에서 일차적인 것이라는 주장과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성별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함의가 다르다. 후자의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전자의 주장은 입증이 필요할 것이다.¹⁴⁾

이 민족지가 전자의 믿음을 가지고 후자만을 보여주면서 버러워이를 비판적 성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여성주의자로서의) 개인적 믿음, 이론, 민족지 기술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급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좀더 명확한 주장과 민족지를 통한 자기 주장의 맥락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맥락화의 한 본보기로 김현미의 민족지를 살펴보겠다.

3. 노동운동과 여성노동자 : 김현미의 민족지

김현미의 민족지는 위의 두 민족지와 비교하여 여성노동자가 획득하는 계급의 정체성을 성의 정체성과 함께 직접 다루면서도 계급을 가부장주의나 젠더에 논리적으로 종속시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비여성주의자에게 편안하게 다가온다. 마르크스주의의 계급과 여성주의의 젠더를 각각의 원론적 개념을 존중하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점은 여성주의에 대한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감정적 편

14) 이와 거의 유사한 차원의 논리적 문제가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라는 책에 나와있는 매킨논(Mackinnon, C. A.)과 윌리스(Willis, E.)의 논쟁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윌리스가 급진적인 여성주의자 매킨논의 주장에 논평한 내용은 참조할 가치가 있다(Mackinnon, C. A., 1998 : 117-121).

견 없이 계급과 젠더의 상호관계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 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한국 여성노동자에 관한 민족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이론적인 의도에 맞추어 현실을 재단하는지에 여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미의 민족지는 80년대 말 미국자본으로 운영되던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이 민족지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은 대부분 소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줌마”들이다. 정치적인 운동에 무관심하던 아줌마 노동자들이 경영진과 대립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것은 무엇보다 회사의 야근 강요였다. 저임금이나 노동통제에도 불만이 당연히 존재했지만 강제적인 야근은 아줌마와 노동자로서의 두 가지 역할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불만이 쌓여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이후 회사는 문을 닫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아줌마 노동자들은 이때부터 직장폐쇄와 체불임금에 대한 투쟁을 벌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줌마에서 노동운동가로 변신을 하게 된다.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 시위도 하고 공권력의 탄압을 받기도 하면서 남성이 주축이었던 다른 노동운동단체는 물론 미디어의 관심까지 끌게 된다. 이와 같이 저항운동이 거졌던 80년대 말의 정치공간에 나서면서 여성노동자들은 정체성과 자아에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민족지는 ‘아줌마 노동자 투쟁사건’에 관계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담론 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삼아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¹⁵⁾ 먼저 아줌마 노동자들의 계급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아줌마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제 주체들(아줌마 노동자 자신, 국가, 미디어, 노동운동단체, 남편 등등)이 당시 사건을 어떻게 재현(representation)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정체성의 획득과정과 담화로 구성되고 재현되는 의식/관념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고리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민족지 속에 통일되어 있다.

먼저 전자, 즉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해서 이 민족지는 회사의 폐쇄를 계기

15) 김현미(1995)가 이 민족지의 핵심을 추려 재구성한 논문을 보면 여기서 논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다.

로 본격적인 투쟁이 전개되기 전까지 아줌마 노동자들에게서 “계급의 표현”(Kim, H. M., 1995 : 17)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본격적으로 “일종의 계급의식”(Kim, H. M., 2002 : 109)이 형성된 것은 투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투쟁이 ‘즉자적 계급(class in itself)’을 ‘대자적 계급(class for itself)’으로 전환시키면서 계급정체성(또는 계급의식) 형성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것은 아줌마라는 문화적 존재양식에 가려져 있던 계급의식(또는 계급정체성)이 투쟁의 경험을 매개로 하여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아줌마로서의 정체성이 노동계급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전환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이 애매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잠시 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부분, 즉 재현의 문제는 미디어가 당시의 지배적인 담론들을 이용하여 아줌마 노동자들의 투쟁을 해석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이 민족지는 여러 가지 역설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적으로 가부장적 지배담론의 피해자였던 아줌마 노동자들이 역설적으로 “여자를 그것도 아이 어머니들을 때릴 수 있나”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가부장적 담론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운동에 대해 과격한 가해자의 이미지를 부여하곤 했던 자본주의의 지배담론이 미국에 건너가 투쟁을 하자 민족주의적 지배담론으로 전환하면서 아줌마 노동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역설은 미디어의 이러한 재현이 이제는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재현되기를 원하는 아줌마 노동자들의 바람을 배신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아줌마 노동자들 스스로가 이렇게 재현되는 여성(혹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활용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이 민족지는 여성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가지는 의식과 정체성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언어적이나 행동적인) 실천적인 계기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여성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이 자본과 갈등하는 노동자의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계급(정체성)과 젠더가 일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면서 여성노동자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민족지는 계급정체성과 젠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을 갖게 한다. 먼저, 이미 언급한대로, 이 민족지가 아줌마라는 문화적 존재양식에 가려져 있던 계급의식 또는 계급정체성이 투쟁의 경험을 매개로 하여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아줌마로서의 정체성이 노동계급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것 같다. 전자라면 계급의식(또는 정체성)이란 노동자로서의 삶의 경험에서 (즉 일종의 헤비투스 habitus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지만 아줌마로서의 허위의식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일 것이다. 후자라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 아줌마들의 정치의식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가 일정한 계기에 의해 새로 형성된 계급정체성에 자리를 내주고 주변적인 위치로 물러났을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에 대한 보상, 강압적인 노동통제,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의 미비 등의 노동조건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자의 경우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초기에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 일하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확고했다는 진술이나 후기에는 "여성으로서보다는 노동자로서 인식"되기를 원했지만 미디어에 의해 반대로 재현되었다는 분석이 정확한 것이라면 후자의 입장이 더 맞는 것 같다.

이와 같이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노동현장에서의 경험보다는 여성노동자의 진술에 기초해서 계급의식에 접근했기 때문인 것 같다. 버러위의 민족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노동현장은 노동자들이 일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의식을 획득해 가는 사회적 공간이다. 일터에서 얻는 다양한 경험이 노동운동의 형태로 발전하는가의 여부와는 별도로 노동자는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조건들과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과 의식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건과 노동통제의 양상이 중요한 것이다. 노동조건이 양호해지고 노동조직이 민주화되고 해계모니적 통제가 실현되면 적대적인 감정과 의식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같은 이유로 강성노조 아래서도 노동조건이 양호하고 통제양상이 민주적이라면 조합원들의 계급정체성이 매우 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아줌마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얻는 경험과 이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여 이들의 계급의식과 정체성을 파

악하는 것이 이들의 진술과 해석을 청취하여 계급의식을 파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민족지가 계급의식의 존재양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민족지가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담화분석의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아줌마들이 말하는 바가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¹⁶⁾ 아줌마들이 “자식 때문에 일하는 것일 뿐 난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줌마로서의 정체성을 더 가지고 있다든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런 불일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필자가 90년대 초 반월공단에서 있는 노동자들을 연구할 때도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한다거나, 사업이 망해서 잠시 있는 것일 뿐이라거나, 조그만 가게하나 열려고 공장에 다닌다는 남성노동자들을 흔히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이 이들의 의식의 작은 부분만을 보여 주거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채수홍, 2003). 미국에서 미국의 경영주, 경찰, 법 등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반미를 모르는 아줌마들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들이 반미감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담화와 진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분석으로 인해 아줌마로서의 정체성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일정한 계기에 따라 자리 바꾸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 것 같다.

IV. 결 론

이 글은 여성주의자의 여성노동자 연구가 반정립(反定立)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시작하였다. 이어 여성주의 인류학자가 민족지 속에서 자신의 비판이 타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와 같은 시도의 궁극적 목표는 여성주의 인류학자의

16) 소머스(Somers, M., 1992)가 narrative approach를 주장하며 사회적 행위자들이 한정된 레퍼토리 안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와 정체성에 대해 자유롭게 말을 꾸며낼 수 없다고 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체성의 다원성을 고려하면 어떤 이야기가 어떤 정체성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비판과 실천을 본보기 삼아 젠더와 계급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민족지 속에 통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데 있다.

여성주의자 인류학자들이 여성노동자의 가족과 가내경제에 관한 기존 분석에 집중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객관성으로 포장된 사실들 아래 숨겨져 있는 가부장주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분업론의 영향을 받은 정치경제학적 여성노동자 연구에 비판을 가한 것은 기존의 구조화되고, 결정화되고, 결정론적인 개념과 사고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자본주의나 가부장주의와 같은 결정화된 개념을 필두로, 경제와 계급의 선차성을 인정하는 결정론, 그리고 차이를 무시하는 남성-편향적 이론을 해체하여 여성주체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세 편의 민족지는 여성노동자의 주체성을 회복시키고 여성의 문제를 논 의의 중심에 부각시키기 위한 이론적 실천을 모범적으로 행한 사례로 평가될 만한 작품들이다. 웅은 성의 사회적 구성과 섹슈얼리티의 정치학을, 리는 생산영역의 성적 사회화를, 김현미는 여성 노동자의 실천과 젠더의 재현 문제를 각각 화두로 여성주의자의 비판정신과 통찰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비판의 정치적·이론적 정당성과 대안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글이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여성주의 인류학자들이 자신이 비판했던 이론에 대한 대안을 민족지 속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미 설명한대로 이 민족지들은 여성주의자의 여성노동자 연구가 차후에 극복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점들은 많은 여성주의자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원적 정체성의 분석에 관심이 있는 사회과학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많은 여성주의자의 민족지가 여성을 결정화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결정화된 남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여성을 다룰 때는 남성과의 차이 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차이까지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막상 남성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가해자로 결정화된다. 이 글에서 분석한 민족지들도 공통적으로 회사, 노동단

체, 미디어, 국가, 아버지, 오빠, 동료인 남성 노동자까지 모두 가부장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공모하는 주체로 묘사되어 있다.¹⁷⁾ 여성을 행위자로서 세우기 위해 남성을 결정화된 대립물로 취급한다면 ‘성의 사회적 구성’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관계적 개념(relational concept)’이 되어야 한다. 남성을 공모자로 단일하게 결정화시키는 것은 동시에 여성을 피해자로 결정화시키는 것이다. 남성이 행위자가 아닌 순간 여성의 행위자로서의 능력도 상실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노동자에 관한 대부분의 여성주의의 이론이 접힌 도화지의 반대쪽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똑 같은 형태의 그림을 재생산하고 있는 데칼코마니를 연상시킬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결정화된 자본주의 대신에 결정화된 가부장주의가, 결정화된 여성 대신 결정화된 남성이, 계급 환원론 대신에 젠더 환원론이, 경제 결정론 대신에 문화 결정론이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결정론적이고 환원론적인 문제를 비판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결정론과 환원론을 반대쪽에서 찍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유사성은 여성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각각 계급과 젠더를 정의하고 양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의 선차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여성을 젠더와 관련하여 다루지 않고 같은 성(sex)을 가진 집단으로 범주화해서 다루거나 젠더를 이차적인 것으로 취급해 왔다. 반면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이미 옹과 리의 민족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언급한 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급을 계급의식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고 범주로서 취급하고 있다. 양 개념을 ‘의식’의 차원에서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 김현미의 민족지도 궁극적으로는 계급의식을 노동에 대한 경험보다는 담화적인 실천에 의해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리의 경우처럼 젠더가 일차적이고 중심적인 범주라고 주장하거나 옹처럼 사실상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민족지 기술을 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민족지들이 (1) 여성주의자로서의 선언적 원칙, (2) 분석적 목표, (3)

17) 브레너(Brenner, 2000 : 58-60)도 국가와 젠더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많은 여성주의자의 이론이 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민족지적 분석 사이에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까닭에 젠더와 다른 정체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1)과 (3)은 젠더 결정론을 수용하면서 (2)는 이론의 비결정론의 추구를 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 노동자를 다룬 여성주의자의 민족지들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레너의 제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Brenner 2000 : 83-84). 그녀는 우리가 젠더와 계급의 한쪽에 무게를 두고 추상적인 논쟁을 반복하기보다는 양자의 관계를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정체성과 물질적 조건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사람들의 물질 조건에 대한 반응을 형성하는데 문화, 담화, 섹슈얼리티, 감정 등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계급의식과 여타의 정체성과 귀속감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마르크스주의(또는 계급)와 여성주의(또는 젠더)의 불행한 결혼생활”(Hartmann, 1979 : 1-33)에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미 (1997). “페미니즘과 문화연구는 행복하게 만나는가”, 현대사상, 제3권, pp. 83-102.
- 채수홍 (2003), *풍물과 노동운동가 만들기 : 80년대 말 한 노동자 예술연행 교육공간에 관한 민족지*. 서울 : 경인문화사.
- Becker, G. (198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In J. Elster(Ed.), *Rational choice*, pp. 108-122.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 Ben-Porath, Yoram (1982), Economics and the family-match or mismat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0, pp. 52-64.
- Blim, M. and Rothstein, F.A.(Eds.). (1992), *Anthropology and the global factory : Studies of the New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 Twentieth Century*. New York : Bergin & Garvey.
- Brenner, J. (2000), *Women and politics of class*. New York : Monthly Review Press.
- Brewer, R. (1997), Theorizing race, class and gender : The new scholarship of black feminist intellectuals and black women's labor. In R. Hennessy and C. Ingraham(Eds.), *Materialist feminism : A reader in class, differentiation, and women's lives*, pp. 236-247, New York : Routledge.
- Brodin, K. (2000), Global capitalism : What's race got to do with it?, *American Ethnologist*, Vol. 27 No. 2, pp. 237-256.
- Burawoy, M. (1985), *The politics of production : Factory regimes under capitalism and socialism*. London : Verso.
- Chae, Suhong (2003), *Spinning work and weaving life : The politics of production in a capitalist multinational textile factory in Vietn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Chayanov, A. (196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Homewood, Ill.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Frobel, F., Heinrichs, J. H., and Kreye, O. (1981),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 Structural unemployment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industrialis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79), *The central problems in social theory : Action, structure and contradiction in social analysi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tmann, H. (1979),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 Toward a more progressive union, *Capital and Class*, Vol. 8, pp. 1-33.
- _____(1981), The family as the locus of gender, class, and political

- struggle. *SIGNS*, Vol. 6 No. 3, pp. 366-394.
- Kim, Hyun Mee (1995), *Labor, politics, and the women subject in contemporary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_____(2000), Power, media representation, and labor dispute : The case of women workers in south korea. In E. N. Chow(Ed.), *Transforming gender and development in East Asia*, pp. 81-104. New York : Routledge.
- Kim, Myung-hye (1991), *Patriarchy, family structure, and late industrialization in korea*. Unpublished transcript, Ohio State University.
- Lee, Ching Kwan (1998), *Gender and the south china miracle : Two worlds of factory women*.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m, L. (1988), Review article : Spirits of resistance and capitalist discipline, *Pacific Affairs*, Vol. 61 No. 2, pp. 133-135.
- Mackinnon, C. A. (1988), Desire and power : A feminist perspective. In Nelson, C. and Grossberg, L.(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pp. 105-121. Chicago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cVey, R. T.(Ed.). (1994), *Southeast asian transitions : Approaches through social history*. 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 Nash, J. (1998), When isms become wasms : Structural functionalism, marxism, feminism and post-modernism, *Critique of Anthropology*, Vol 17 No. 1, pp. 11-31.
- Nash, J. and Fernandez-Kelly, M. P.(Eds.). (1983), *Women, men and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Niehoff, J. (1987), *The Villages as industrialists : Ideologies of household*

- factories in rural taiwan. Modern China, Vol. 13 No. 3, pp. 286-307.*
- Ong, A. (1987a), *Spirits of resistance and capitalist discipline : Factory women in malaysia.*
- Albany (1987b). Dissembling gender in the electronics age, *Feminist Studies, Vol. 13 No. 3*, pp. 609-626,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oseberry, W. (1986), The ideology of domestic production, *Labour, Capital, and Society, Vol. 19*, pp. 70-93.
- Somers, M. R. (1992), Narrativity, narrative identity, and social action : Rethinking english working-class formation, *Social Science History, Vol. 16 No. 4*, pp. 591-629.
- Weeks, K. (1996), Subject for a feminist standpoint. In S. M. Makdisi, C. Casaariono, and R. E. Karl(Eds.), *Marxism and beyond marxism*, pp. 89-118. New York : Routledge.
- Wolf, D. L. (1992), *Factory daughters : Gender, household dynamics and rural industrialization in jav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lf, M. (1972), *Women and the family in rural taiwan*,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Woman, Worker, Woman Worker : Gender and Class in Feminist Ethnographies

Suhong Cha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class as it is presented in the ethnographies that describe the life of the female factory workers in the Third World and are written by the feminist anthropologists. This article seeks to take lessons from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insights of the feminist ethnographic works on the female factory workers' gender and class and simultaneously find out the problems in those works.

In detail, I first introduce the criticisms that the feminist anthropologists raised on what they call as the male-biased ethnographies of the female workers' subjectivities. To outline the standpoints and theoretical aims of the feminist anthropologists that were revealed in the criticisms, two kinds of ethnography challenged by them are discussed in this article.

Secondly, focusing on the issue of gender and class, I explore the ways that the feminist anthropologists themselves attempted to overcome the problems that they found in the non-feminist descriptions and analyses of the female factory workers. For the purpose, I mainly introduce and examine three ethnographies of the female factory workers that present exemplary analyses of female subjectivities. Those are Aihwa Ong's 'Spirit of resistance and capitalist discipline'(1987a), Ching Kwan Lee's 'Gender and the south china miracle'(1998), Kim Hyun Mee's 'Labor, politics and the women subject in contemporary korea'(1995).

Thirdly, this article raises some questions of the problematic arguments and theoretical points on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class that I find in the three

*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thnographies in specific and in the feminist works on the working class in general. I argue that feminist works on the female working class including those mentioned in this article tend to repeat, rather than overcome, the same problems of Marxism that they mostly challenge and criticize. For example, the feminist works tend to essentialize men instead of women who, many feminists criticize, are essentialized in most Marxist works. In a similar vein, Feminism/Marxism, patriarchy/capitalism, essentialized-men/essentialized-women, class-reductionism/gender-reductionism, economic determinism/cultural determinism might unfortunately be regarded as the different sets derived from the same epistemology.

In conclusion, as a way of dealing with the similar predicaments that both the feminist and the marxist studies on the working class are stuck in, I propose three subjects of study that we need to delve into more seriously to understand dialectic relationship of class and gender. Those are (1) the relations of material conditions and multiple identities, (2) the role of culture, discourse, sexuality, and feelings in formulating and reformulating people's response to the material conditions and (3) the relationship of class consciousness and identities.